

지역대학들 정부지원사업 잇단 성과

전남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A등급 243억원 사업비 확보
 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S등급 인센티브 90억
 광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A등급 사업비 60억 지원 받아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가 굵직한 정부 지원사업 평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전남대학교는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우수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남대는 인센티브 109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24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전남대는 융합연계전공과 자기설계전공 운영,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등 유연한 학사 운영과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역량 교양교과목 운영, 성과관리시스템(보라미)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IR 기반 성과 환류 체계 구성 등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 유형1 중 여수캠퍼스 창의 융합학부의 경우 50% 정원 범위 내에서 광주캠퍼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캠퍼스 간 이동을 허용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우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전남대는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을 관리할 조직체계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계획을 보완해 추진해 예정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도 교육부 주관 재정 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 지원) 성과평가에서 2023년 A등급에 이어 2024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조선대는 이번 평가로 인센티브 90억원을 받는 등 총 사업비 16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국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주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이다.

성과평가는 대학이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립한 교육혁신전략의 실제 달성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정한다.

교육혁신 성과 S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우수사례를 전제 대학과 공유한다. 근로장학생 우선배치 등의 혜택도 부여받는다.

조선대는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학생의 생애주기별 교육성과, 경계 없는 교육혁신을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등 교육혁신 전략 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우수성이 S등급 달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올해 사업비로 총 60억 4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지원 대상 117개교를 대상으로 2차년도(2024년) 평가를 시행했으며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광주대는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혁신체’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 ▲재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다각적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재학생 대상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학생의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AI 에듀테크 센터를 신설해 교수학습법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을 도출한 점 ▲교육혁신 제도 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각종 학칙과 규정 제·개정과 교육혁신 추진과정에 다양한 내·외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환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 대학생 해외 선진기업 탐방 활발

에너지·미래형운송기기 사업단

5개 대학 100여명 미·독 등 견학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선진기업 탐방 연수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산업육성사업단은 최근 제주지역혁신플랫폼 그린에너지·모빌리티 사업단과 공동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대학교에서 에너지산업 분야 교육연수와 기업체 탐방, 필드 트립 등 현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체 선발 과정을 거친 전남대와 제주대를 비롯해 총 8개 대학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미래형운송기기육성사업단은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유럽 내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글로벌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독일 에너지 자립마을과 HOFOR(열병합발전소)를 견학하는 등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동신대학교 학생 10여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대학교육혁신본부 융합전공 가운데 첨단부품소재, 친환경 스마트 선박, 미래에너지-IP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총 46명은 각 과정별로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를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산업육성사업단이 최근 제주지역혁신플랫폼 그린에너지·모빌리티 사업단과 공동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대학교 등지에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11일 출국하는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 16명의 학생들은 전기차량 생산 중심지인 Mercedes AM센터,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KUKA 기업 등을 방문, 신기술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현장 실무자들에게 생생한 선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공분야의 지식을 쌓을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은 오는 10월 일본 오사카 제조공업 박람회인 ‘Manufacturing

World 2024’에 참여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선진기술을 접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박성수 총괄운영센터장은 “지역혁신(RIS)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핵심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일·학업 병행하며 산업체 전문가 꿈 이룬다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내년도 신입생 선발 입시 설명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커 나갈 미래형 인재를 키워낸다.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오는 9월9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앞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강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통해 ▲자동차 설비과(20명) ▲스마트 전기과(25명) ▲호텔조리관광과(25명) 등 3개 학과에서 총 70명을 뽑을 예정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동강대는 호남 제주지역 대표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산업체 전문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먼저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학비 면

제 뿐 아니라 취업장려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학년 때는 취업약정 협약을 맺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산업체 재직자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동강대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관련 기업 28곳을 비롯해 스마트 전기 관련 45곳, 호텔조리관광관련 41곳 등 총 114개 기업체와 손을 잡고 산학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TP 입주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외부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동강대는 오는 13일 3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잡매칭’ 행사를 통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예비 학생들이 원활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의 면접 예정 학생들에게는 정장 대여 및 차량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KWU 거점특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광주여대의 특성을 살린 지역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4년 KWU 거점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2024 KWU 거점특화 프로그램’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생과 광주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광주여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여대의 특성을 살린 K-뷰티,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강의와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진로 탐색과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광주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진희 센터장은 “이번 ‘2024 KWU 거점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진희 센터장은 “이번 ‘2024 KWU 거점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